

제18편 - 제3신앙촌시대(제5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68회)

제18편
제3신앙촌 시대(제5부)
- 신앙촌과 전도관의 끝마무리 작업 시작
1) 전국 전도관을 팔기 시작함
2) 회사명칭을 시온(ZION)에서 삼광(三光)으로 바꿈
3) 돌연 구판부를 만들
4) 영모님은 고리대금업자?
5) 온천지가 불바다가 된다!

1. 신앙촌과 전도관의 끝마무리 작업 시작

2) 회사명칭을 시온(ZION)에서 삼광(三光)으로 바꿈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신앙촌 그룹 산하 회사의 공식적인 명칭은 '시온(ZION)'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시온그룹'이라고 불렀다. 영모님은 '시온'이란 명칭을 매우 사랑했다. 예배 시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란 찬송도 즐겨 많이 부르셨다. 그래서 영모님은 시온의 영광을 재현하러 오신 분이냐는 말도 했다. "영원한 세계에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시온성이다(82.125)" "죄를 완전히 벗기 위한 시온성이다(81.11.2)"라는 말씀은 회사 명칭을 바꾼 후에 하신 말씀인데 이처럼 시온이란 명칭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실 정도였다. '시온'이란 명칭은 하나님 회복의 역사에 '에덴'이란 말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명칭이다.

그런데 1979년 영모님은 회사 공식 명칭을 '시온(ZION)'에서 '삼광(三光)'으로 변경하였다. 이후부터 모든 공식 명칭은 삼광으로 통일되었다. 느닷없는 회사 공식 명칭 변경에 다들 놀라워했다. 그래서 아무리 영모님을 수십 년씩 생명을 걸고 따른다고들 했지만 결국 영모님의 영의 움직임을 육으로만 바라보고 육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께서 이제는 모든 재산을 당신의 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법적인 수순을 밟는 것으로들 해석하였다. 영모님에게 세 아들이 있기에 명칭을 세 아들을 상징하여 삼광(三光)으로 회사 명칭을 바꾼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러나 영모님의 회사 명칭의 변경은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즉 세 분 하나님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1신앙촌은 영모님의 출현을, 제2신앙촌은 해와인간의 출현을, 제3신앙촌은 아담이간자이신 구세주의 출현을 상징하여 건설된 것임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삼광(三光)은 세 분 하나님이 출현했음을 알리는 뜻이다. 세 분 하나님이 성공리에 영광되게 출현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영모님은 세 아들 중 셋째인 박윤명에게 회사를 전부 맡기고, 첫째와 둘째에게는 회사에 접근도 못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아 그렇다. 만일 세 아들들을 위하여 삼광(三光)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각 회사를 세 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경영시켰을 것이다. 영모님은 역시 영적인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을 암시적으로 알리고 계셨던 것이다.

3) 돌연 구판부(購販部)를 만들

영모님은 계속해서 부도가 난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부도가 나면 모두가 끝장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전국의 소비조합



은 말할 것 없이 전국 전도관 사장들에게 새벽마다 불같은 임금 독촉을 하시는 것이다. 관장들은 전화를 받고는 하루종일 돈 마련을 위해서 사방으로 뛰어다녀야만 했다. 최선을 다해서 송금을 해야 한숨을 돌리고 다른 일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 날 새벽에 "너 때문에 이젠 째짜들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라는 호통치시는 영모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다. 이런 전화를 받은 관장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1980년에 영모님은 돌연 특별구판부(特別購販部)를 만들었다. 이유는 부도가 나게 생겼기 때문에 특별부를 만들어서 국내의 유명제품들을 싸게 사서 전국 전도관을 통해서 팔아 부도 나게 막아야 하겠다는 말씀이었다.

1980년경엔 우리나라가 불황이 되어서 각 회사마다 물건을 만들어놓고 팔지를

못해서 째짜들 때였다.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 2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신앙촌 특판부라는 간판을 달았다. 전국의 각 회사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들고 찾아와서 납품하려고 야단들이다. 중소기업에서 재벌기업까지 다양한 회사들이 제품을 들고 와서 신앙촌에 납품을 시키려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신앙촌에서는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의 약속어음을 끊어주고 물건을 납품받았다. 그런데도 자기네 물품을 납품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달려든다. 그들은 신앙촌의 영모님만은 틀림없다고 믿었던 것이다. 당시 국내 상황은 그럴 정도로 불황의 늪에서 다들 허덕이고 있었다. 신앙촌에서는 신앙촌 상표를 부착하고 납품을 받았다. 가지각색의 종류의 물건들이 신앙촌 상표를 부착하고 전국으로 팔려 나갔다. 삼성물산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스타인벡' 피아노를 신앙촌에서 인수하면 수입 원가로

주겠다고 하면서 납품을 받아달라고 매일 와서 사정하였다. 그 피아노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를 몰라서 우선 썸플로 그랜드 피아노를 한 대 납품받아서 가장 신앙촌으로 보냈다. 그랬더니 영모님이 그 피아노를 보시고 내가 먼저 한 대 팔아주지 하시면서 그랜드 피아노를 사서 제단에 놓았다. 영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마음 놓고 삼성물산을 통하여 수십 대의 피아노를 납품을 받아 전국으로 팔았다.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피아노도 상당히 많은 양을 납품받아 전국적으로 팔았다. 이렇게 한 것은 전 교인들이 신앙촌이 부도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있는 힘을 다하였던 것이다.

4) 영모님은 고리대금업자(高利貸金業者)?

어쨌건 1980년경의 영모님의 행적은 그야말로 종잡을 수가 없는 행동뿐이었다. 매일같이 단애만 서시면 "부도가 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다. "부도가 나면 너희들도 다 여기서 나가 사방으로 흩어져야 돼"라고 하셨다. 영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들 긴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영모님의 능력을 아는 교인들은 설마 영모님이 이런 큰 역사를 일으켜 놓으시고 대책없이 부도를 내어 망쳐 놓을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영모님은 하늘의 역사를 하는 주인공이신데 절대로 부도가 나는 일같은 것은 없을 것으로 확신들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만의 하나 정말

부도가 난다면 최악조건이 될 것이라고 되어 절대로 부도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있는 힘을 다하여 밀었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새벽마다 영모님의 임금 독촉을 받아야만 되고, 전화를 받은 전국 관장들은 어떤 수단도 써서라도 송금을 해야만 하루 일과가 끝났다. 더욱이 가장 신앙촌의 소비조합원들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움직였다. 판매 임금성적에 따라 금뺨찌를 주고, 금뺨찌의 수에 따라 특별한잔을 받고 상을 받았다. 그러나 소비조합원들은 무슨 돈이라도 끌어다들여서 입금을 시켰다. 고리채도 마다 하지 않고 끌어다들여서 입금시켰다. 나중에는 그 엄청난 고리채도 얻을 수가 없어서 다들 사색이었다. 오직 생명줄이 영모님에게만 있다고 확신을 하는 이분들의 노고는 정말 눈물겨운 것이었다. 이런 분들이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간 마귀 자식들이 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때에 영모님은 기가 막힌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고리채도 못 구해 째짜들은 소비조합원들에게 돈을 빌려주시는 것이다. 그것도 2부 이자로 빌려 주시는 것이다. 영모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다들 순간 '애 이럴수가!'라고들 생각하였다. 그러나 영모님의 말씀이러면 팔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는 생명을 내건 소비조합원들이 아닌가. 그분들은 도리어 이와같이 하시는 영모님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2부 이자를 그것도 선이자를 떼고 빌려가기 시작하였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64회

弄弓歌(四) 농궁가

外有八卦九宮裡 외유팔괘구궁리
內有十勝兩白理 내유십승양백리
天地都來一掌中 천지도래일장중
執衡按察心靈化 집행안찰심령화
真人用事海印法 진인용사해인법
九變九變變易法 구변구변변역법
天地運乘但當人 천지운승단당인
弓乙合德化活人 궁을합덕화활인
修道先出容天杵 수도선출용천박
龍天伯人亦一理 룡천백인역일리

하도낙서 육도삼략의 과상(卦象)에는 밖으로 드러나기는 8괘 9궁이 있고, 안으로 감추어지기는 십승과 양백의 이치가 있는데 천지의 운행도수가 십승 양백의 주인공의 한 손바닥 안에 있으니 저울을 잡으시듯 인간의 마음을 안찰하여 마음을 변화시키느니라.

이것이 진인(정도령)이 감로해인을 용사(用事)하는 참된 법이다. 구변구복(九變九復)의 변화의 역법에 따라 천지가 합하는 운(중천개벽의 운)을 타고 죽는 세상을 죽지 않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분이 바로 궁을(弓乙) 합덕(合德)한 박활인(朴活人)이니 먼저 수도(修道)를 하여 나온 하나님의 얼굴을 한 목인(6도72궁) 이니라.

마지막으로 진장남(震長男)에 해당하는 금운(6도81궁) 정도령도 같은 이치로 오시느니라.

天崩地拆素砂立 천붕지터소사립
火雨露三三豐理 화우로삼삼풍리
天主大堂築高山 천주대당축고산
萬事一理成道時 만사일리성도시
聖神拒逆嘲笑時 성신거역조소시
天災地變並至時 천재지변병지시
生死門之生死路 생사문지생사로
萬一生門不入時 만일생문불입시
死門之中突入時 사문지중돌입시
魔王之前從鬼滅 마왕지전종귀멸
凡觀無味不知人 범관무미부지인
天地開闢何能免 천지개벽하능면
聖山聖地牛鳴地 성산성지우명지
萬世不變安心處 만세불변안심처
末世二柿或一人 말세이시혹일인
萬世春光一樹花 만세춘광일수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대로 마지막 중천운의 천지공사는 소사(素砂)에서 일어나느니라.

화우로(火雨露) 삼풍해인(三豐海印)이 내리는 하나님을 모신 큰 성전을 산과 같이 높이 세우니 만사(萬事)가 하나의 이치로 합해지는 도가 완성될 때에 성신(聖神)을 거역하고 조소한다면 천지의 재앙(災殃)과 변고(變苦)가 동시에 일어나리라.

생(生)과 사(死)의 문으로 이르는 길에서 만일 영원한 생명의 문(生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의 문(死門)으로 돌입하여 마왕(魔王)앞에 굴복할 때에

불사영생의 천지공사는
시작도(목운72궁) 소사(素砂), 끝맺음도(금운81궁)
소사(素砂)에서 이루어진다(시종간야소사지 始終良也素砂地)



육도삼략도 중 삼략 시를 담당한다.

는 마귀를 따라서 멸망이 있을 뿐이나라. 무릇 보고도 아무 맛도 없다고 하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가 개벽할 때 어찌 그 재앙을 면하겠는가?

성산성지(聖山聖地)는 소 울음소리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는 진리 말씀을 해 주시는 곳이고 이곳이 영원토록 만세불변(萬世不變)하는 안심처(安心處)이니라.

말세의 주인공은 두 감람나무요(목운과 금운) 혹은 한 사람(금운=목운+여인 한 분+금운의 삼위일체)이니 만세 영원토

록 불빛을 밝혀서 나무에서 영원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분이로다.

육도삼략운행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선천 - 복희(1도 36궁), 문왕(2도 45궁)
후천 - 수운(水雲) 최제우(3도54궁), 화운(火雲) 강증산(4도63궁)
중천 - 목운(木運) 박태선(5도72궁), 금운(金運) 조희성(6도81궁)이 소사에서 불사영생의 천지공

사를 담당한다.

선천, 후천은 죽음을 면할 수 없으나 중천의 천지공사가 끝나면 더 이상 죽음을 없는 세상이 열린다. 강증산 선생(4도63궁)이 말한 '이 뒤에 두 사람이 더 나온다.'(도전10:27) 고 말한바 바로 목운(5도72궁)과 금운(6도81궁)을 말하는 것이다. 또 '처마 밑에서 대 도통 난다.'(도전6:47)고 하였으니 치마는 목운(木運)이며 영적인 어머니(영모님)로서 대 도통하는 사람이 금운(金運)이 되는 것이다. 성경(계12:5)에는 똑같은 말이 있으니 '해를 입은 여인이' 아이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

는 드러나지 않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 밖에 드러나면 오묘하지 않다고 불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격암유록에서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음을 정하여 지상선국(地上仙國)을 건설한다.'는 것도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계(巽)는 목운(5도72궁), 용(龍)은 금운(6도81궁)이다. 금운 속에 목운, 여인 한분, 금운이 삼위일체가 되어 있다. 금운에 이르러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 좌정(坐定)하여 소사(素砂)에서 불사영생(不死永生)의 천지공사를 하시는 것이다.*

박명하/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랑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홈페이지 www.victor.or.kr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